

일복을 타고난 사람-

“에너지는 곧 환경의 문제입니다!”

■ 이선호 기자(w3master@energycenter.co.kr)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UNEP(환경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기획부장을 거쳐 에너지시민연대 발족과 함께 '에너지가족'이 된 김태호 사무처장은 올 1월 최승국 전 사무처장이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사임하게 됨에 따라 사무처장직을 승계했다.

에너지시민연대의 실무책임자인 김태호 사무처장(35세)은 철학도다. 그가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전공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다.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UNEP(환경프로그램) 한국위원회 기획부장을 거쳐 에너지시민연대 발족과 함께 '에너지가족'이 된 그는 올 1월 최승국 전 사무처장이 환경운동연합으로 복귀하게 됨에 따라 사무처장직을 승계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25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매우 규모가 큰 조직입니다. 과분하게도 이러한 조직의 사무처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밝힌 김 사무처장은 에너지절약 백만가구운동, 에너지조례 제정 및 법·제도 개선사업, 에너지효율화 확산운동, 무동력 교통수단 확산운동 등 올해 에너지연대가 적극 추진하는 4대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같은 핵심사업 과제를 선정하게 된 것은 그간 시민단체 등의 노력에 힘입어 세간의 인식이 많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와 환경을 별개의 문제가 아닌 '에너지 문제는 곧 환경의 문제'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에너지연대는 '에너지절약 백만가구운동'을 전체를 총



“전년도까지의 사업이 모색과 고민의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전국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활동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국제적인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NGO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필하는 기반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시켜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에너지절약운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화절약과 자원고갈의 우려라는 공급에너지측면만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너지연대 출범 이후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대안에너지의 확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 등 수요관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접근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사무처장이 꼽는 지난해 에너지연대의 성과중 하나는 ‘서울시의 에너지조례 제정’이다. 그에 따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세계에서 최초로 에너지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중앙정부 위주의 에너지사업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발성을 획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신규설비시 자연에너지 적극 활용’ 등과 같은 규정을 조문에 반영함으로써 에너지 문제가 환경문제로 자연스럽게 치환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책임성도 크게 강조될 수밖에 없어 한층 성숙된 시민사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에너지연대는 올해 전국 10개 광역시에 에너지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 사무처장의 올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연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도 줄지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256개에 달하는 참여단체를 재정비하여 연대의 질을 높이는 것도 그의 몫으로 남아있다. 에너지 문제를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에너지 마당극도 2월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공연될 예정이고, 건물 냉난방온도 실태조사와 캠페인도 매월 한 차례씩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년도까지의 사업이 모색과 고민의 시기였다면 올해부터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전국 확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과 홍보활동에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 국제적인 문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NGO의 목소리를 담아낼 계획입니다.”

‘일복을 타고 난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는 말이 있다. 설 새없이 핸드폰 전화가 울려대는 김태호 사무처장을 보며 ‘바로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무리일까. “에너지 문제에 직면한 각 주체들과 시민의식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김 사무처장의 퇴근시간은 오늘도 늦은 10시 근방이다. e



김태호 사무처장은 지난 4월 22일 서울 명동에서 '겨울철 난방 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태호 사무처장은 이번 캠페인이 내복만 입고 가